



# 이동글 수능국어

문학 문제지

## 지문을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과 원칙

단순 연도별 기출 문제 배열이 아닌 동일한 구조와 행동을 보이는 기출 문제들을 패턴화  
그리고 단순 문제 해설이 아닌 지문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주는 수능 국어 기출 분석서  
11개년 기출 문제를 일관된 틀로 주제에 입각하여 분석하자

도란도란

# 문학 목차

## 운문 문학 (현대)

### 대상 중심

11수	자화상 / 선제리 아낙네들 / 그 나무
1509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1409	상한 영혼을 위하여
1506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14수	낙화
1406	접동새
1406	팔원-서행시초3/동승
14수	파초우 / 사평역에서
1709	병원 / 나무
1809	플라타너스 / 달

### 상황 중심

14예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15수	고향 앞에서 / 낡은 집
1409	생명의 서 일장 / 농무
1509	모란이 피기까지는 / 고고

### 이미지 중심

2006	추일서정 / 하늘과 돌맹이
2009	청명 / 초록 바람의 전언

### 복합 중심

1309	또 다른 고향 / 자화상 2 / 멀치
20수	바람이 불어 / 새
14예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성에꽃
1606	성묘 / 외할머니의 뒤편 텃마루
13수	폭포 /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마음의 고향6- 초설
1506	와사등 / 울타리 밖
19수	출생기 /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16수	아침 이미지1 /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운문 문학 (고전)

### 사랑

1509	정석가
1606	정선 아리랑
14수	고전 시가
15수	상사곡
1906	서경별곡 / 만분가

### 자연

1509	만분가
16수	용비어천가 / 강호사시가
1506	도산십이곡
1709	방옹시여
1506	촉규화
1409	매화사
14예	어부사시사
1606	농가 / 농가월령가
1609	전원사시가
2009	상춘곡 / 고산구곡가

### 풍자와 비판

1609	탄궁가
1406	시집살이 노래
16수	고공답주인가

### 기행과 여행

17수	연행가
19수	일동장유가

# 문학 목차

## 산문 문학 (현대)

### 1인칭

1509	도요새에 관한 명상
18수	관촌수필
14수	난쏘공
1806	큰 산
1606	봄봄
1609	옛우물
1906	한계령
16수	나목
1406	만세전
14수	소문의 벽
1506	모래톱 이야기
14예	원미동 시인
16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609	잔등
20수	자전거 도둑

### 3인칭

11수	나상
13수	천변풍경
2009	자서전을 쓰십시다
1206	화산택이
1909	비 오는 길
12수	돌다리
14예	무정
1209	나룻배 이야기
2006	토지
1309	역마
15수	무영탑
1606	흐르는 북
1706	삼대
1809	눈이 오면
1406	미스터 방
1409	꺼삐딴 리

### 복합

1306	가객
1409	광장

## 산문 문학 (고전)

### 가정 소설

11수	운영전
1209	육미당기
1609	창선감의록
20수	유씨삼대록
1706	최척전
1409	숙영낭자전
14예	사씨남정기
18수	사씨남정기
1609	옥단춘전

### 영웅 소설

14수	홍길동전
1909	홍길동전
13수	금방울전
1606	전우치전
1306	임진록
1606	홍계월전
1506	임경업전
19수	임장군전
1406	조웅전
2006	조웅전
1509	유충렬전
15수	소대성전
1806	적성의전

### 적강화소

14수	옥루몽
1406	구운몽
15수	속향전

### 판소리계 소설

1506	흥부전
14예	흥부전
1309	열녀춘향수절가
1206	심청전
16수	토끼전

### 풍자 소설

12수	호질
2009	장끼전
1409	국순전
1906	옹고집전

# 문학 목차

## 극문학

극문학	
1409	원고지
1606	결혼
16수	제향날
12수	산허구리
16수	소
1809	불모지

시나리오	
14예	8월의 크리스마스
1306	출세기
1909	공동경비구역JSA

## 문학 복합

극문학 복합	
17수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19수	천변풍경 / 오발탄

동일 작품 복합	
1809	춘향전 / 춘향이별가
1509	무진기행 / 안개
1709	독 짓는 늙은이

비평문 복합	
18수	강 건너간 노래 / 묘비명
1706	가시리
1806	고풍 의상 / 결빙의 아버지
1709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17수	박씨전 / 시장과 전장
1909	한거십팔곡 / 추억에서

수필 복합	
14수	권태
1406	봄
1209	수려기 / 덴동어미화전가 / 도산십이곡
1806	오륜가 / 차마설
15수	관동별곡 / 유한라산기
2006	유원십이곡 / 조용
20수	월선헌십육경가 / 어촌기
18수	비가 / 풍란
1309	누항사 / 병산육곡 / 조어삼매
13수	성산별곡 / 독자왕유희유오영 / 신록 예찬
15수	조찬 / 파초
1706	향현 / 우리가 물이 되어 / 눈
1609	꽃덤불 / 사랑 / 보리
1906	휴전선 / 우포늪 왓새 / 주을온천행

현대시 고전시	
12수	구두 한결레의 시 / 산 너머 남촌에는 / 북찬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 국어 영역 (현대시)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길을 걷다가 그 노래를 듣고 나도 모르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동글 수능국어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미리보기]

2011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화자가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는지를 중점적으로 읽어주세요.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시간은 4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  
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뻐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A]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릅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 ‘늦된 나무’가 피워 낸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접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⑤ ㉤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미리보기]

2015학년도 9월에 출제된 대상 중심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정서/태도를 보이는지 읽어주면 됩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A]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5도 영상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B]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5.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④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B]에서는 봄-나무의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②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B]의 '부르터지면서'는 봄-나무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 ③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B]의 '들이받으면서'는 봄-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낸다.
- ④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 ⑤ [A]의 '벌'은 겨울-나무의, [B]의 '짹'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생성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 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②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나무의 의지로 나무가 내적인 힘을 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온몸이 으스러지도록'은 나무가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④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 ⑤ '꽃 피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 국어 영역 (현대 소설)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비 오는 날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동글 수능국어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미리보기]

현대 소설의 독해 포인트 세 가지에 맞춰서 읽어주세요.

- ① 인물 정보 / 분위기
- ② 부정적 상황
- ③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태도

저는 출제된 모든 작품을 위의 세 가지 틀로 동일하게 해설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읽어줘야 합니다. 2015학년도 9월에 출제된 작품입니다. 5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삶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이 도시의 생활환경이 왜 자연을 파손시키느냐의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난 것이다. 실의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죽여 내던 내 갇힌 생활 안으로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화롯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 날아다녔다. ㉠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새 중에서도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그중 중부리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형과 함께, 그 외의 날은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못과 개펄을 싸돌았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떼새목의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의 입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일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 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 ㉢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여러 말을 재잘거렸다.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있던 이끼류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채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사십이 점 일 구 오 킬로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의 싸움 [A] 이라고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 가빠 하며 열심히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

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오백만 년 전 신생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 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 천지에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를 대이동으로 장식해 온 것이다. 오직 생활환경에 적응기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 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재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 왔다. 가을이 왔다.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부리도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중부리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 지대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새 중에 이제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의 물떼새 무리가 그 것이다.

나는 열 개의 미터글라스가 꽃힌 시험관꽃이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독 위를 걷고 있었다.

(중략)

나는 시험관꽃이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 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 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 있다.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팔십 미터에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십 년이나 이십년 뒤 육가크롬화로 앓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보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누가 들으란 듯 내가 말했다. ㉤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최면에 걸린 말이었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를 비웃을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리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진술의 해학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 ② ㉡ : 인물이 대상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 ③ ㉢ :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의해 각성되고 있다.
- ④ ㉣ : 인물이 대상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 ⑤ ㉤ : 인물의 의지가 확고해진 상태에 이르렀다.

## 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을 설정하여 도요새의 지혜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도요새의 말이라는 우화적 장치를 통해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도요새 무리의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도요새의 비행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를 제시하여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도요새의 습성과 인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4. 윗글의 [도요새]와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 하더라  
 - 안민영, 매화사 제2수 -

\* 암향부동 :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음.

- ① '도요새'는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고, '매화'는 화자에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
- ② '도요새'는 인물의 욕망을 대리 표현하고,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
- ③ '도요새'는 인물에 종속된 존재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에게서 독립된 존재를 상징한다.
- ④ '도요새'는 작지만 인물에게 교훈을 주고, '매화'는 어리지만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



본 교재의 저작권은 도란도란 출판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려면 도란도란 출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글 수능국어

문학 해설지

지문을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과 원칙

단순 연도별 기출 문제 배열이 아닌 동일한 구조와 행동을 보이는 기출 문제들을 패턴화  
그리고 단순 문제 해설이 아닌 지문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주는 수능 국어 기출 분석서  
11개년 기출 문제를 일관된 틀로 주제에 입각하여 분석하자

도란도란

## 현대시

## [학습 포인트]

문학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마다 해석도 다른 경우는 물론이고 선생님들마다 해석도 다른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한 시인의 작품이 수능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나중에 풀어보니 자기도 틀렸다고 하니 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객관식 시험에서 주관적인 해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마다 해석이 다르다면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결국 복수 정답이 허용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출제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만들까요? 그들은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집어내서 이를 토대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주어와 서술어 부분입니다. 기억하세요. 시는 글자 그대로 읽어줘야 합니다.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의 원칙을 숙지하도록 합시다.

- ① 주어와 수식어, 서술어 부분 확보
- ② 해석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읽어줌

이게 시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알아야겠죠.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는 **시적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여주는가. 잘 기억해주세요.

우선 정서와 태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객관적으로 의미를 확보해주면 됩니다. 즉, ‘홀로’, ‘슬프게도’와 같은 단어에 드러난 ‘외로움’, ‘슬픔’과 같은 정서와 태도를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에서 정서가 드러나면 그대로 확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출을 풀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정서와 태도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두 가지로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그들에게 톱밥을 던져 주었다.’

어떤가요? 어떤 정서와 태도죠? 기출을 많이 풀어보고 정서와 태도를 학습한 학생이라면 ‘연민’의 정서와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두 가지로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물론 시의 구체적 맥락이 있어야 알겠지만 위의 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두 가지로만 판단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시를 읽으면서 어구가 반복되고, 변화하고, 대비되는 부분을 반드시 읽어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도 객관적이죠. 문제로 출제하기 좋습니다. 반복과 변화와 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공부하면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글자 그대로 읽기 (주어, 수식어, 서술어)
- ② 정서와 태도 확보
- ③ 반복, 변화, 대비 파악

위의 세 가지 틀을 통해 수능에 나오는 시를 모두 분석할 것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읽어줘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작품을 읽어가면서 계속 일관되게 적용해보도록 할게요.

## [작품 독해 전 보기 분석]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그려낸다고 한다.

각 작품을 읽을 때 제목과 <보기>는 반드시 확인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독서와 달리 문학은 제목과 <보기>에서 작품 독해의 틀을 제공하니 무조건 먼저 읽어주세요.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해설]

**대상, 상황 : 외딴 우물을 홀로 들여다 봄**

현대시에서는 수식어와 서술어 위주로 사실 관계 그 자체를 읽어주면 됩니다. 어? 우물을 들여다 봐?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하네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해설]

**대상, 상황 : 우물 속 자신의 존재 인식**

우물에는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물 속에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보기>를 먼저 읽어줬다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보기>는 작품 해석의 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해설]

**대상, 상황 : 한 사나이가 있음.**

**정서, 태도 : 성찰**

우물에 한 사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워져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목과 <보기>를 통해 성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냥 미워져 돌아간다고만 알아두세요. 글자 그대로 확보하는 겁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해설]

**정서, 태도 : 연민**

사나이가 가엾어진다고 합니다. 연민의 정서, 태도죠. 기출을 학습할 때 “아, 이런 점이 이런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네”를 계속 학습해두면 시의 정서, 태도를 확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명심하세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해설]

**정서, 태도 : 미움, 그리움**

사나이가 미워지고 다시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시를 읽으면서 정서, 태도는 반드시 체크해줘야 합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  
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해설]

**대상, 상황 : 우물 속 자신의 존재 인식**

우물 속에는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 사나이가 있다고 하면서 마  
무리하고 있네요. 끝입니다. 작가 자체와 시대 상황을 달달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럴 필요 없이 서술어와 수식어를 중심으로 읽어주고 정서,

태도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현대시의 핵심입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짚어댄다  
이 개 짚으니 저 개도 짚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짚어댄다  
이런 개 짚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해설]

개들이 짚어대고 짚어대고 또 짚어대는 사이로 말끝이 들린다고 합니  
다. 이게 무슨 의미죠? 모릅니다. 서술어와 수식어 위주로 반복되는  
표현을 파악해 주세요.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종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해설]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와 의종은 소리는 남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이 아니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네요. 남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죠?  
몰라요. 그냥 글자 그대로 확보하고 반복, 변화, 대비는 꼭 중요한 출  
제 지점이니 파악하면서 읽어줘야 합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해설]

**대상, 상황 : 선제리 아낙네들**

화자는 고달픈 삶을 사는 선제리 아낙네들에게 주목하고 있죠.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해설]

**정서, 태도 : 안타까움**

한밤중에 십릿길 더 가야 한다면서 빈 배 요기도 못하는 선제리 아  
낙네들에 대해 안타까움의 정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체  
크해야죠.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해설]

**정서, 태도 : 공감**

그래도 고생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낙네들끼리 나눈다면 의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 있네요. 공감의 정서, 태도를 체크해주세요. 이  
 게 공감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기출에서 이런 지점들을 계속 학습해  
 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공감이구나” 계속 기출을 보면서 정서, 태도  
 를 학습해주세요. 무슨 표현법이니 작품 공부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해설]

이제는 개 짖는 소리가 뜸해지고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죠? 모릅니다. 서술어와 수식어 위주로 읽어주고 정서, 태도  
 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해설]

**대상, 상황 : 꽃 한 송이 펼쳐 들지 못하는 늦된 나무 발견**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해설]

**대상, 상황 : 부끄러운, 숨어 있는 그 나무**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해설]

**정서, 태도 : 안쓰러움**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해설]

**정서, 태도 : 기대감, 동질감**

나무라는 대상을 보고 화자도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시적 대상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비춰보는 거죠.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해설]

**정서, 태도 : 동질감**

화자도 병든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다는 것으로 보아 나무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출을 보면서 학습하겠지만  
 옆에 누워보고,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대상을 보고 자신을 비춰보고  
 모두 동질감/일체감을 느끼는 정서, 태도로 학습해주면 됩니다.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해설]

**정서, 태도 : 기대감**

나무가 잎을 피울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다) 작품  
 은 간단하게 해설해봤습니다. 서술어와 수식어, 그리고 정서, 태도 위  
 주로 읽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 김명인, 「그 나무」 -



## 6

## 이동글 국어

## 1. 정답 ④

정답 선지를 봅시다. (가)는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안타까움이, (나)는 아낙네들에 대한 안타까움, (다)는 나무에 대한 연민이 드러났었죠. 정서, 태도만 확인해줬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 다. 나머지 선지들도 정서, 태도 위주로 판단하면 됩니다.

## 2. 정답 ④

이번에도 정서, 태도 위주로 판단해 볼게요. 정답 선지를 봅시다. 우물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 를 들여다 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다고요? 서술어에 주목해 봤을 때 들여다보고, 미워지고, 그리워지고 다시 우물 속을 들여다 보고 있죠. 계속 성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존재 탐구를 끝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3. 정답 ②

정답 선지를 봅시다. [A]는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했느냐를 묻고 있죠. ‘짓어댄다’, ‘남이 아니다’와 같은 유사한 구 절을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복, 변화, 대비는 반드시 파악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자면 “공감각적 심상을 묻고 있네? 다음 지문 읽을 때는 공 감각적 심상 무조건 체크한다!” “현재 시제? 찾으러 가자!” “의성 어를 묻네? 아... 다음에는 이것도 지문 읽으면서 체크한다!”와 같 이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거 위주로 먼저 판단한 뒤 그 래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찾으러 가 는 겁니다. 무작정 작품에 드러나 있는 모든 표현법을 내신처럼 찾아내고 ①번부터 모든 선지를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시간 은 시간대로 걸리고 정답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틀을 통해 작품을 읽고 문제도 그에 맞게 판단하 는 것, 이게 바로 문제를 푸는 기본 태도입니다. 꼭 명심해주세요.

## 4. 정답 ④

㉠을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죠? 늦각이 깨달음을 얻으려고요. 이는 일탈적 삶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늦각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죠. 나무라는 시적 대상으로부터 화자의 정서, 태도가 드러나 있 습니다. 정서, 태도는 반드시 파악해줘야 합니다.

## [학습 포인트]

대상/상황	나무
정서/태도	송고한 면을 예찬

대상이 중심이 되는 작품을 읽어봤습니다. 화자가 대상을 보고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지를 학습해주세요.

## [작품 독해 전 보기 분석]

나무의 내적인 힘에 의해 생성,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읽으면 되겠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 [해설]

**대상, 상황 :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

화자는 나무에 주목하고 있네요.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죠? 모르죠. 일단 읽어볼게요.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 [해설]

**대상, 상황 :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고 온몸으로 나무가 되고 온몸으로 헐벗고 온몸을 뿌리 박고 있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 있고 벌받는 자세로 서 있다는 것을 주욱 연결하면서 읽어주세요. 모두 같은 맥락이네요.

## 고득점 특강

**연결**

시어, 시구, 시행의 연결은 두 가지로만 판단한다.

- ① 같은 맥락의 유사한 것을 연결
- ② 다른 맥락의 상반되는 것을 연결

왜 이렇게 연결하며 읽어야 하는가? 첫째로 시의 유기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둘째로 화자가 지향하는 것과 단절하고자 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된다. 셋째로 형식이 같으면 대체로 의미가 같으니 시어, 시구, 시행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 [해설]

**대상, 상황 : 거부하면서 밀고 올라감**

‘그러나’ 라고 하면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시상의 전환도 변화이니 체크해줘야죠. 반복, 변화, 대비는 체크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무는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읽고 있나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대상에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보기>를 통해 자기 부정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되겠네요.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해설]

**대상, 상황 :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됨**

서술어를 중심으로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이 되고 나무가 된다’는 것은 생성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이는 <보기>의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성으로 파악하면 되겠죠.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해설]

**대상, 상황 :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

여기서 주목해줘야죠. ‘아아’라는 영탄법인데 영탄법에는 화자의 정서,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화자의 반응을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가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파악해줘야 합니다. 반복 표현은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으로 -

## 고득점 특강

**반복**

시어, 시구, 시행이 반복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 ① 운율감이 느껴진다.
- ② 정서가 드러나고 정서를 심화한다.

시어, 시구, 시행뿐만 아니라 반복에는 이런 것도 있다.

- ① 대구    ② 점층    ③ 수미상관

위의 세 가지는 반복의 일종이므로 시를 읽으면서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같은 맥락의 시어, 시구, 시행을 항상 연결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고 다른 맥락의 시어, 시구, 시행은 대비하면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5. 정답 ②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4%	89%	2%	1%	4%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등과 같은 반복의 표현 그리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영하에서 영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와 같은 점층의 표현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나무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닌 독백적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은 화자의 시선 방향으로 생각하면 된다.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은 드러나지 않고 ‘나무’라는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토속어는 어느 지방에서 쓰이는 어휘를 말한다. 토속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 ⑤ 의성어는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 의태어는 사물의 모양, 상태, 느낌을 흉내내는 말이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로 보아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의성어나 의태어가 쓰이지 않았다.

[COMMENT]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 토속어, 의성어, 의태어 등을 모두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버리자. 지문에서 읽은 것 위주로 먼저 판단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때서야 지문으로 찾으러 가자.

문학 개념어 특강

독백

독백이란 무엇인가. 독백이라는 것은 혼자서 중얼거린다는 의미이다. 평가원이 출제한 시에서 독백의 의미를 따질 때 다음과 같이 판단하도록 하자.

① 독백과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가 전제되어 있으나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 독백

청자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6. 정답 ④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4%	2%	6%	82%	7%

열정? 생성의 이미지, 그리고 온 몸으로 나무가 된다고 했으니 충분히 허용 가능. [A]의 ‘두 손’은 나목으로 서 있는 겨울-나무의 가치를 묘사하고 있다. 한편 [B]의 ‘뜨거운 혀’는 짝을 내밀고 있는 봄-나무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나무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B]에서는 ‘하늘을 들이받으면서’를 통해 봄-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② 좌절감? 응. 아니야. [A]의 ‘뿌리박고’는 나무의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B]의 ‘부르터지면서’는 짝을 띄우는 나무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좌절감과는 거리가 멀다.
- ③ 자연의 질서에 순응? 응. 아니야. [A]의 ‘대가리 쳐들고’, [B]의 ‘들이받으면서’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짝이 봄-나무의 고통이라고? 응. 아니야.[A]의 ‘벌’은 겨울-나무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고, [B]의 ‘짝’은 고통이라기보다 생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COMMENT]

선택지의 설명을 잘 보도록 하자. 정서, 태도 위주로 판단한다.

7. 정답 ④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4%	2%	2%	91%	1%

‘아아, 마침내, 끝끝내’라는 표현은 겨울-나무가 자기의 온 몸으로 봄-나무가 되는 과정에서 화자의 심리가 표출된 부분이다. 따라서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보기>의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설명과 연관 지을 수 있다.
- ②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것은 <보기>의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이라는 설명과 연관 지을 수 있다.
- ③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짝을 내밀고 앞이 되면서 나무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기>의 ‘나무의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과 연관 지을 수 있다.
- ⑤ 헐벗은 나무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와 생성을 거듭하여 꽃 피는 나무가 된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한다.

[COMMENT]

정답 선지만 정서, 태도 위주로 판단 해보자. 겨울-나무가 계속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라고? 응. 아니야.



을 싸돌았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떼새목의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의 임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일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 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여러 말을 재잘거렸다.

[해설]

‘나’는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삶답지 못한 생존의 높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며 실의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죽여 내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일상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도, 자유스럽지 못한 사고를 가진 인물이에요. 인물 정보 모두 확보해줬죠?

#### 고득점 특강

##### 인물 정보 파악

소설의 작품 초반에는 분위기와 인물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인물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소한 행동을 골라 집어 그 인물의 특징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청소를 하는 인물이 나오면 결벽증인 인물이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인물이 나오면 건강을 중요시하는 인물이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이처럼 파악하면 쉬울 것이다.

—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 있던 이 끼류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방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준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사십이 점 일구오 킬로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 가빠 하며 열심히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오백만 년 전 신생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 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궁 천지에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를 대이

동으로 장식해 온 것이다. 오직 생활환경에 적응기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 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해설]

이 부분 읽기 어려웠겠죠. 앞으로도 인물의 내면 심리 위주로 글이 전개되면 읽기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생각하면서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 주세요. 도요새의 말을 빌리는 우화적 형식을 취해 인생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인간은 간사하고 탐욕에 차 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여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네요.

#### 고득점 특강

##### 인물의 내면 심리 파악

인물의 내면 심리 위주로 글이 길게 이어지면 독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① 소설의 3대 특징 활용

인물의 내면 심리 위주로 글이 전개되더라도 소설의 3대 틀에 맞춰 읽어야 함은 변함이 없다. 인물 정보, 부정적 상황, 심리/태도 위주로 읽어내도록 하자.

##### ②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보에 반응

모든 내면 심리를 박박 긁어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심리/태도에 반응하여 읽도록 하자.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재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 왔다. <가을이 왔다.>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부리도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중부리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 지대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해설]

동진강이 폐수로 크게 오염되어 중부리도요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부정적 상황이에요. 체크해줘야죠. 현대 소설에서 부정적 상황은 반드시 파악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정적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태도를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새 중에 이제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의 물떼새 무리가 그것이다.

나는 열 개의 미터글라스가 꽃힌 시험관꽃이를 들고 동진강



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독 위를 걷고 있었다.

(중략)

나는 시험관꽃이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 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 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 있다.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팔십 미터에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십 년이나 이십 년 뒤 육가크롬화로 앓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봐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누가 들으란 듯 내가 말했다.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었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를 비웃을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해설]

“두고 봐라. 내가 기필코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여기서 반응해줘야죠. ‘나’는 도요새의 재잘거림을 통해 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이처럼 수질 오염도가 높아 새를 찾을 수 없다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태도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합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 1. 정답 ③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2%	0%	93%	1%	0%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서술자인 ‘나’가 겪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도요새를 찾을 수 없었던 경험을 서술하고, 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 ① 어리숙한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없으며 해학성을 강화하고 있지 않다.
- ② 주변 인물이 아닌 ‘나’가 화자이면서 주인공이다.
- ④ ‘나’가 화자이면서 주인공이므로 결코 객관성을 높이는 서술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1인칭 주인공 소설에서 객관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자.
- ⑤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2. 정답 ④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1%	0%	1%	94%	1%

인물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요새의 재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도요새에게 그만큼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환경 파괴로 인해 도요새가 보이지 않자 “두고 봐라. 내가 기필코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도요새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인물의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는 부분을 통해 도요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기다렸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두고 봐라.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라는 부분을 통해 인물의 의지가 확고해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정답 ②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2%	93%	0%	1%	1%

[A]는 도요새가 말하는 방식을 취하는 우화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인간은 사악하고 간사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자연과 인간을 파멸 시킨다는 도요새의 말을 통해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도요새 무리의 갈등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갈등 해소 과정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4. 정답 ④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1%	2%	2%	92%	1%

부정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나’는 도요새의 재잘거림을 통해 환경 개선의 의지를 가지게 된다. 또한 <보기>의 어리고 성긴 ‘매화’는 기약을 지켜 꽃을 피웠으므로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① 도요새의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과 극기를 통해 인물에게 자신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화’는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있으므로 자존감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A]를 통해 도요새가 인물의 욕망을 대리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요새가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가 도요새의 말을 빌려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화’를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도요새는 자유를 찾기 위한 상징물에 가까우므로 인물에 종속된 존재를 표상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화자는 매화를 믿지 않았지만 결국 피어났다는 것을 통해 매화는 화자에게서 독립된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매화에 대해 화자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교재의 저작권은 도란도란 출판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려면 도란도란 출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값 30,000원  
54000



9 791196 568764

ISBN 979-11-965687-6-4  
ISBN 979-11-965687-4-0(세트)